

Dubai유, 하반기 배럴당 평균 65달러

유가협회, 이란 핵협상 결렬시 추가 상승 ... 허리케인으로 공급차질 우려

하반기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상반기보다 배럴당 평균 3-4달러 상승한 65달러 내외의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6월29일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최근 국제 석유시장 동향 및 하반기 유가전망>을 주제로 제23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하반기 국제유가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7월1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수급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 핵문제와 관련 8월말로 예정된 서방 중재안에 대한 이란의 공식적인 답변이 향후 국제유가 향방과 변동폭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미국의 금리정책에 따라 석유시장의 투기자금 유입 여부와 수요 증감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2006년 허리케인 시즌이 빈번하고 강력할 것으로 예보되는 점도 공급차질 우려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란 핵협상이 군사적 충돌사태로 발전하거나 대형 허리케인 피해로 미 멕시코만에서 대규모 공급차질 요인이 생기게 되면 국제유가는 65달러 이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국제금융센터, 국방연구원 등 국제 석유시장 및 중동문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04>